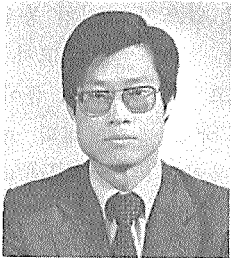


원貨 切上의 문제점과 과제



郭 泰 運

서울市立大学校 貿易学科 助教授/経博

최근 급속히 일고 있는 원화절상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들자면 현행 환율제도의 바스켓의 재구성, 정책변수인 γ 의 운용상 문제, 수출업체의 절상에 대한 환리스크 극복 능력 등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절상폭 최소화 노력과 환율절상 및 변동에 대한 사전예고제 강화, 절상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탈락문제 검토, 그리고 기업의 시장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망된다.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가속적으로 切上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것은 금년 들어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진 한·미 무역마찰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절상으로 대미수출을 견제하여 한·미간 무역흑자폭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처韓 통상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가속적인 절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출채산성을 악화시켜 이른바 限界企業의 증대를 가져와 고용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적지 않아 크게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예견되는 노사분규의 재연, 임금인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시장여건이 더욱 더 악화될 전망으로 있어 정부와 기업 양측에서의 원화切上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本稿에서는 환율의 최근 변동추이를 먼저 살펴보고 환율절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간략히 지적해 보고자 한다.

II. 원貨 切上의 推移

먼저 원貨切上의 추이를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율절상 속도가 최근 급격히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원貨는 미달러에 대해 85년까지만 해도 一方적으로 切下되어 왔으나 86년 하반기부터 切上되기 시작한 이래 86년 중에 3.2%, 87년 중에 8.02% 각각 切上된 바 있다. 금년 들어서는 1월중에 1.35%, 2월중에 2.66%, 3월중에 1.95% 각각 切上되어 금년 1/4분기 중에 이미 5.8%의 切上率을 보였는데 이를 年率로 환산해보면 23.4%에 달하여 전례없이 높은 切上率을 나타내고 있다.



원화의 가속적인 절상은 기업 경쟁력과 수출채산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한국과의 경쟁국들의 환율은 금년 들어 오히려 미달러貨에 대해 일제히 切下되고 있는 데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금년중 이들 국가들의 환율변동을 보면 3월말 현재 대만이 0.32%, 홍콩이 0.57%, 싱가포르가 0.29%씩 각각 切下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도 2.77%나 切下되었다. 따라서 금년 들어 미달러貨에 대해 切上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원貨밖에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그 切上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한국 원貨 切上의 가속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 수출업체들의 대외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속적인 원화의 절상은 미국의 연쇄적인 시장개방압력(쇠고기, 담배 시장개방 등), IMF의 통화절상요구, 대미무역수지흑자 등을 그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상마찰에 대해 환율의 절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시장의 개방은 국내 생산업체의 희생을 대가로 통상마찰을 극복하려는 전략임에 비해서 통화절상은 수출업체의 희생을 대가로 통상마찰을 극복하는 전략인데 최근 환율의 가속적인 절상은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둔 정부의 통상마찰 극복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최근의 환율변동 추이

	한국(W/\$)	대만(NT\$/\\$)	홍콩(HK\$/\\$)	싱가포르(S\$/\\$)	일본(¥/\\$)
85	890.20(-7.6)	39.849(-1.0)	7.8110(-0.10)	2.1200(3.4)	238.54(20.2)
86	861.40(3.20)	35.500(10.91)	7.770(0.52)	2.1805(-2.85)	158.05(33.74)
87	792.30(8.02)	28.550(19.58)	7.7600(0.13)	1.9995(8.30)	121.00(23.44)
88. 1	781.60(1.35)	28.610(-0.21)	7.7970(-0.48)	2.0180(-0.93)	128.05(-5.83)
2	760.80(2.66)	28.620(-0.03)	7.7990(-0.03)	2.0100(0.40)	128.35(-0.23)
3	746.00(1.95)	28.640(-0.07)	7.8045(-0.07)	2.0053(0.23)	124.35(3.12)
87년말 대비 변화율	(+5.84%)	(-0.32%)	(-0.57%)	(-0.29%)	(-2.77%)

주: ()는 전년비 또는 전월비 切上率(%)임.

자료: 무역협회

II. 문제점과 과제

환율의 절상과 관련하여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보면 우선 우리나라 환율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율은 다음의 算式을 통해 계산된다. 즉

$$ER = \alpha(\text{SDR}) + \beta(\text{독립바스켓}) + \gamma$$

ER : 한국 원화의 미달러당 환율

$$\alpha + \beta = 1.$$

· γ : 정책 변수

여기에서 α , β , γ 등은 모두 비밀이며 SDR 바스켓은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独自 바스켓은 역시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독자바스켓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비중으로 구성되고 SDR바스켓은 세계 주요 교역국의 무역 비중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SDR 바스켓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의 独自 바스켓에서도 한국의 무역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현행 환율제도 하에서는 미국 달러貨와 일본 엔貨의 비중이 SDR과 独自바스켓에 중첩적으로 가중치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한국원貨의 환율이 미국달러貨와 일본엔貨의 환율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간에 아무런 환율 변동의 경제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엔貨만 미달러貨에 대해 절상되면 한국원貨는 자동적으로 미달러貨에 대해 절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수출업체는 생산성의 증가나 기타 내부적 요인이 없는데도 환율이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율제도의 바스켓을 재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현행 환율제도의 채택 당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압박 등을 배경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외채가 줄어들고 국제수지가 흑자를 나타

내고 있는 오늘의 경제환경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환율제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책변수 「 γ 」의 운용이다. 현행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그것은 정책변수 γ 의 운용에 따라 얼마든지 고정 환율제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는 변동환율제나 고정환율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더라도 정책변수 γ 의 운용이 정부당국에 의해 과도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정보를 완전하게 흡수할 수는 없으며 또 시장의 정보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가, 수출업체, 생산자 등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포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진 정부가 정책변수 γ 를 통해서 환율을 책정하게 될 때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타 통화들은 모두 미달러貨에 대해 切下되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의 원貨만은 유독 切上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변수 「 γ 」의 운용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환율이 切上되어도 수출업체들이 그에 따른 換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앞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후 환율을 예측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先物로 매각하게 되면 換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先物換市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先物換市場이 열려 있지만 시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원貨의 국제교환성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대가로 원화를 매입해 주려는 先物 매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달러貨 가치의 하락을 예상한 수출업자의 달러화 先物매각 주문이 있어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貨를 대가로 그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매입주문이 없고(왜냐하면 원貨의 교환성이 없기 때문에 원貨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 외환시장의 딜러가 없기 때문임), 또 국내 先物市場에서도 달러貨 가치의 하락을 모두

예측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선뜻 매입하려는 매입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先物換市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환율절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정부는 환율절상폭을 너무 크게 해서서는 않된다. 환율절상폭이 단기간에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수출채산성 등등 급격하게 악화시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경쟁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율절상 또는 환율변동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강화하여 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증대 등을 통해 스스로 체질개선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전예고제는 특히 경제내의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기업이 시장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스스로 산업 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정부는 환율절상으로 한계기업의 탈락에 따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환율이

계속 절상됨에 따라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그 한계기업은 수출업체에서 탈락하여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완전히 시장에서 축출되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 고용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한계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여 산업조정 또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율절상이 단기간에 가속화되고 또 큰 폭으로 진행될 경우 그러한 피해 구제대책의 수립은 더욱 더 절실하다.

끝으로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가속되는 원화절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것이므로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선의 발굴, 수출시장의 다변화, 현지 직접생산, 직접투자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이다. 요컨대 원화절상 외에도 앞으로 예견되는 노사분규, 그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의 시장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업가들 스스로의 능동적인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다.

電子用語 略語表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SDI : Enhanced Small Device Interface
SCSI :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P : Draft Proposal
BER : Bit Error Rate
DER : Defect Error Rate
PMMA : Polymethyl Methacrylate

RF : Radio Frequency
rpm : Revolutions Per Minute
SC : Subcommittee
SG : Standardization Group
TC : Technical Committee
WG : Working Group
WO : Write Once
ROMP : Research/OPD Micro Processor
SPARC : Scalable Processor ARChitecture
LRU : Least Recently Used